

사설

스님들의 사유재산?

선우도량이 최근 '현대사회에서의 삼보정재와 출가수행자의 윤리성'에 대해 스님과 재가신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행자의 생활경제 해결을 위한 좋은 자료가 된다.

오늘날 우리 승가는 무소유의 원칙과 자본주의적 경제환경 속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생활필수품 소유라는 현실적인 갈등을 겪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실정에서 이번 설문결과는 스님들의 생활비 생활필수품 소유정도부터 삼보정재의 관리대책까지 승가의 경제적 식과 활동실상을 진단하게 한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무소유를 원칙으로 하는 출가수행자들도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소유개념의 경제행위를 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즉, 스님들의 사적 재산의 소유에 대해 75.2%가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은 인정한다'고 응답했다. 또 스님들의 사적 소유품도 64.6%가 일상생활과 노후생활을 위한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행자들의 기본생활과 노후의 타락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현실의 반영이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되돌아보면 종래 종단이나 사찰분규가 권력과 경제력 주도권의 행사와 결코 무관치 않았던 점, 그리고 주지를 해야 경제적인 공립을 면할 수 있다는 일부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일상생활과 노후를 위해 사적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64.6%의 응답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

'무소유'의 불교전통의 경제개념이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정도로 소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나타나는데 '계율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 (38.2%)이라는 점도 있지만 '스님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종단의 지원이 없기 때문' (38.2%)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또 주목할만한 사항은 승가의 복지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이다. '종단에

서 정책으로 책임져야 한다' (79.4%)는 응답이 가장 지배적이다.

현재 제방에서 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스님들의 최소의 생활과 노후 의탁 등 승가복지문제는 결국 종단적 차원에서 해결점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는 소리다. 출가수행자가 마음 놓고 수행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단정책으로 승가복지의 실현이 전제되어야 한다. 수행자가 없는 교단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만큼 승가복지 실현은 중요하다.

한편 스님들의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은 개인 소유를 인정해야 한다면 수도 삼보정재라는 전통적 계율에 의해 사적소유조차도 승가나 사부대중의 공동 재산이라는 견해(78.7%)를 보였다.

스님 개인소유와 종단 삼보정재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52.3%)는 응답도 있지만 개인 사실사유지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할로 전환해야 하며(48.7%), 종단에 등록되어 종단에 귀속하거나(43.5%) 법인에 등록하거나(22.6%), 사부대중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찰(22.3%)로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스님이 개인적인 재산을 소유한 예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있다고 본다. 승려가 개인 재산을 소유하다가 갑자기 입적하게 되면 현행 사회법상 재산 상속은 승단이나 출가사제와는 상관없이, 승가 친속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삼보정재가 영동하게 유출되는 사례도 간혹 있다.

스님 개인 소유물의 상속권 문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심으로 회한 재산이 헛되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삼보정재의 운용은 이번 설문 결과 나타난대로 종단에 귀속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차제에 종단에서는 승려복지법과 사적재산 소유의 한계를 규정짓는 제도를 마련해 앞으로의 부작용을 막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열린마당

조계종 소의경전 '금강경'

'금강경' 국한탈피 교학체계화

밀원 (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사견임을 전제한다. 소의경전(금강경)과 전통법어에 국한시킴은 지칫 전법과 교학연구, 보살도 실천을 소홀히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금강경 아함경 범화경 화엄경으로 이어지는 경전체계에서 소의경전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강경의 요체는 공(空)이다. 그러나 이 경에는 공을 '불가득 불가설' (不可得不可說), 즉 얻을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공을 연기의 원리로 설명하는 경전이 (아함경)이다. (범화경)은 피안에 이르러 다시 차원으로 돌아와야 함을 설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화엄경)은 깨달음을 생활속에서 펼칠 수 있는 도리를 밝히고 있다.

나는 이 경전들을 '조계4부경'으로 부르고 싶으며, 이 경전들의 교학체계화가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금강경 강의 활성화 필요

지운 (승광사 김원 강주) 우리나라 조계종은 조계산 육조 혜능 스님의 사상에 연원을 두고 있다. 또한 혜능스님의 역자인 (육조단경)은 (금강경)에 대한 가장 정통적인 뛰어난 주석서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에 조계종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소의하고 있는 스님이 32%에 불과하다는 한 설문조사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또 20%에 달하는 스님이 '소의경전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응답하고, 23.4%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더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의 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근원을 망각하는 환부역조(換父易祖)의 큰 죄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결과는 교유의 교학전통을 무시하고 세속 학문의 잣대로 불법을 저울질하는 김치못한 사려에서 나온 결과라 생각된다. 설문응답자의 70% 이상이 법랍 20년 이하의 소장 스님들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출가 연령과 학력이 높아진 시대적인 상황이 전통승가의 '수행'을 현대적인 '교육'으로 세속화시키는 풍토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종단도 (금강경) 법회와 강의를 활성화해 소의경전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오가해' 공부하는 경우 많아

화선 (불국사선원 임승) (금강경)을 소의하고 있다는 스님이 생각보다 적은 것은 (금강경)보다는 (금강경오가해)를 공부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일 것이다. (금강경)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대충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금강경)에 대한 선사들의 사상이 담겨져 있는 (금강경오가해)를 공부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금강경오가해)가 공부나 수행에 훨씬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스님이려면 누구나 소의경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에 들어서 이같은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고 본다. 어느 한 경전만을 고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소의경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소의경전에 대한 체계와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금강경)을 소의하고 있는 스님이 적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소의체계나 소의경전 자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어떻게 수행하나' 더 중요

현선 (서림동문화·삼성암 주지) 조계종 중흥에는 소의경전을 '금강

경'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스님 개인의 성품에 따라서 다른 경전을 수지독송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며 이것은 바로 불교의 장점이 아닐까 한다.

불교에는 각자의 생활과 믿음의 대상에 따라 관음신앙, 문수보살 참배기도 등 여러형태의 기도와 예배가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맞는 옷을 골라 입어아만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교 수행에 있어서도 같은 이치가 적용된다고 본다.

불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바로 마음의 편안함, 즉 해탈하는데 있는 만큼 어떤 경전을 지니고 수행하느냐보다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조계종 교학전통 따라야 마땅

중석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4년) (금강경)이 조계종의 소의경전임에도 불구하고 소의하는 스님이 32%밖에 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는 '종학(宗學)의 체계'가 제대로 전승되지 못해 나온 결과물이라 여겨진다. 종현이 정한 소의경전을 수지독송해야한다는 필요성과 의무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의경전에 대한 인식 부족은 수행자로서 자신의 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앞만 보고 가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개개인의 성격이 다르듯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종론을 무시하면 종단이 바로설 수 없듯이 조계종에 소속된 승려라면 (금강경)을 소의해 교유의 교학전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종단은 (금강경)법회와 강의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스님들은 (금강경)을 방편삼아 수행과 교화에 전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소의경전이란

종파의 수행요전 지침 '금강경' 조계남종선서 유래

법산(동국대 선학과 교수)

소의경전이란 종지종풍 확립을 위한 종파의 수행요전을 지침한다. 한 종파에 소속된 승려는 소의경전을 독송 해설하며 수행해야 한다. 중국 선종의 경우 달마를 초조로 하므로 달마종이라고도 하며 (능가경)을 소의경전으로 하기 때문에 능가종이라고도 하였다. (속고승전) '해가조'에 보면 선종의 초조달마가 해가에게 전법할 때 (능가경)을 함께 전해 주면서 "이 경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스스로 깨달아 세상을 제도하리라" 하였다고 한다. 그후로 선종의 소의경전이 (능가경)이었다고 하며 오조 홍인이 능가변상도를 조사전의 회공에 그리도록 한 (육조단경)의 내용을 보아도 그때까지의 소의경전이 (능가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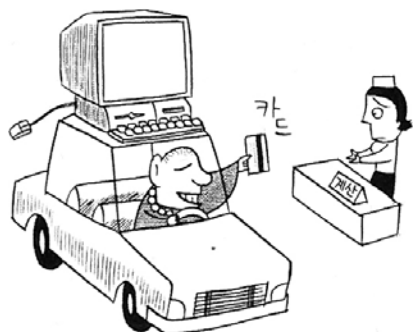
다만 육조 혜능이 (금강경)의 '유무소주 이생기심(無所住而生其心)'이라는 구절에서 깨달음을 얻었으며, 홍인이 혜능에게 전법할 때 (금강경)을 전해 주었다는 점에서 (금강경)이 선종의 소의경전으로 변신하게 되었다고 본다. 학자들의 견해로는 혜능의 제자 하택신회가 활대선언을 통하여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선종의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육조단경)도 신회의 기록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중국선종 5파분류이전의 선종으로 조계남종선을 주로 유입하였으므로 조계종의 명칭과 (금강경)의 소의경전이 전통으로 전래되었다. (금강경)을 주로 독송토록 한 기록은 고려시대 보조지눌의 조계산 수선사의 수행요목에 나타나 있다.

한국불교가 원효의 화쟁사상에 바탕을 둔 통불교 이념을 지향하므로 선종의 명칭하여 정토·화엄·법화·밀교 등의 수행법이 두루 혼용되고 있지만, 조계종의 소의경전이 (금강경)인 만큼 (금강경)의 보급과 독송을 중도들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대만평

현대만평



사회변화 따라 필수품으로

20세기의 큰일이 또하나 떨어졌다. '작은거인' '오뎅이(不倒翁)' 중국의 '마지막 황제' 등으로 불리우는 鄧小平 (덩샤오핑·93)이 19일 영면에 들었다.

12억 중국인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 '현대 중국의 아버지', 개혁과 개방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실험에 성공을 거둔 '개혁의 설계사'.

그는 중국을 현대화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세계속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홍콩 반환 협상, 대만의 대륙 친척방문,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성사시킨 인물이 바로 그였다.

조용한 혁명가로 알려진 그는 정부에서 공을 세우던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다. 몇번씩 실각해도 때를 기다려 다시 일어섰다.

"나에 대한 평가가 과장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나의 자력이나 지위를 모

목어

潭東(마오쩌둥) 주석위에 올려 놓는 건 더욱 원하는 바가 아니다. 명예가 높으면 도리어 부담이 커진다. 내가 살아온 방식은 간단하게 취급하고 죽은뒤의 장

鄧小平의 좌우명

례식도 간단히 하도록 부탁한다." 89년 은퇴식에서 한 말이다. 얼마나 멋진가. 마치 어느 선생님의 말을 듣는 느낌이다. "내가 떠난후 사리를 수습하지 말라. 사리탐을 세울 생각은 아예 그만두라." "내" 시신을 화장하여 인천 앞바다에 고기밥으로 뿌려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신 스님들

의 말씀과 흡사하여 난세를 걸어온 풍운의 정치인에게서 수행승의 면모를 본다. 그는 정신과 물질을 따로 보지 않았다.

"정신적 현신만을 중시하고 물질적 이익을 중시하지 않는 것은 비생산적인 관념론에 불과하다."

"부유해지고 싶은 사람은 먼저 부유해져라."

금세기 최후의 거인이 역사속으로 사라지자 세계는 동북아의 정세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한반도도 그 영향권에 들어 있다. 덩샤오핑의 좌우명 처변불경(處變不驚)은 격변속에 살고있는 우리들에게 더없는 교훈일 수 있다.

'어떤 변화가 와도 경솔하게 행동치 않고 어떤 사태가 벌어져도 놀라지 않겠다.' 그의 좌우명을 되새기며 교인의 명복과 세계평화를 기원하자.

심장병·안면기형·백내장 환자가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삶을 함께 나누는 사회

작은 정성일지라도 실천으로 옮겨질 때 그 향기 이웃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헌혈이나 강로심장회 회원이 내는 회비가 교통속에 쓰러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더불어 사는 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강로심장회와 함께 사회 봉사에 동참합시다. 나와 이웃이 삶을 함께 나누는 강로심장회를 통해 사회복지 증진의 꽃을 피우십시오.

*도움을 기다립니다. 후원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사단법인 강로심장회

T. 0591)749-0106 F. 0591)747-0107

오쇼 라즈니쉬의 진리로운 책들...

살아 있는 선(禪)

-오쇼 라즈니쉬의 <벽암록> 강의

성철 스님은 '벽암록을 읽으면 모든 알음알이가 딱 끊어진다'고 하였다. 이렇듯 선문제일서로 유명한 벽암록, 그중에서도 선가에서 손꼽히는 선문답을 20여 개 골라 어렵고 불분명하기만 했던 선의 세계를 오쇼가 여기에서 명쾌하게 풀어헤친다.

류원장 옮김 / 380쪽 / 값 9,000원

신간

42장경

부디의 42장경을 한문이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쇼 자신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우주적 농담, 재치 있는 예화를 곁들여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제1권 삶의 해면에서 모은 조약돌 / 448쪽, 제2권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 440쪽 황광우·이경옥 옮김 / 전2권 / 각권 값 7,500원

말없는 자의 말 (양장본)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과 철학과 신을 바라본 인도의 명상가 오쇼의 생애 마지막 명상록 이경옥·황광우 옮김 / 176쪽 / 값 4,800원

여기, 다시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달마의 벼락 같은 목소리가 있다 옛 선사들의 뇌성이 있다

